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제3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경제·시장 상황

금년들어 수출호조*와 함께 산업생산 지표도 크게 개선**되는 등
실물경제 회복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수출동향(\$억): [20.3월] 461.7 → [6월] 392.1 → [9월] 478.2 → [12월] 513.3 → [21.3월] 538.3

** 전산업지수: 21.2월 111.6을 기록하며, 19.12월(111.5) 이후 최고 수준 갱신

전세계적으로도 IMF·OECD 등 국제기구들이
2021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조정*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 21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 , 20말→21초): [IMF] 5.2→6.0, [OECD] 4.2→5.6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나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는 등
실물경기 회복의 온기를 아직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그동안 전례없는 수준으로 증가한 글로벌 유동성과
이로 인한 자산·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IMF·FSB* 등에서는

충분한 금융지원조치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금융분야 위험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 조기 정상화(premature unwinding)에 따른 경기위축 등의 부작용 감안 시, 충분한 금융 지원 지속 필요. 다만, 과도한 지원 등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 누증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

각국 정부도 대응기조를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과잉 유동성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고,

* 인민은행 유동성 회수(21.2월, 44조원),

부동산개발업체 레버리지 규제 강화, 은행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 등(20.12월)

미국·일본 등도

적극적인 경기회복 조치를 연달아 시행하면서도

일부 금융완화 조치는 종료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 [美] 회사채 신용지원프로그램(PMCCF 등) 중단(20.11), 은행 레버리지 규제완화 중단(SLR)(21.3) 등

[日] BOJ의 ETF 최소매입한도 삭제(21.3) 등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도

중장기적 시계에서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 운용 방향에 대하여

그 간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그 동안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적시에(not too early, but not too late), 기민하게(move quickly)”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를 운용해 나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3. 대응 방향

정부는 코로나19 금융대응과 관련하여,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으로 방역·실물·금융여건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 ① 코로나19 확산세, 국내외 이동성 지수 등 **방역 지표**,
- ② 경기전망, 기업매출 동향 등 **실물 지표**,
- ③ 유동성 증가세, 채무상환능력, 자산건전성 등 **금융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지, (→ ① **위기지속 단계**)
회복이 개시되었는지, (→ ② **회복 단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정상화되었는지를 (→ ③ **정상 단계**)
진단할 계획입니다.

진단 결과,
코로나19 위기가 지속 중인 경우,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금융대응조치 수준을 낮춰나가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정책기조 변화,
국제금융기구의 정상화 논의 등과도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단-대응 정책체계’에 따라
2021년 3월말 상황을 평가해 보면,
코로나19發 위기국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고,
실물경제, 기업실적 등에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현행 금융지원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국지적 리스크 요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대응조치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면서
시장수요에 맞게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재배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P-CBO는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은 지속해 나가면서,
연착륙 지원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경우, **증안펀드와 채안펀드는**
지원틀을 유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증안펀드는 오늘 매입약정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금융권·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현재 시장여건**상 매입약정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장기능에 맡겨도 충분하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 매입약정기간: 증안펀드 출자기관들이 캐피탈콜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간
(펀드조성시 20.4.9~21.4.8로 설정 → 출자기관 동의를 거쳐 재설정 가능)

** 코스피지수: [20.3.19] 1,457.6 → [20.12.30] 2,873.5 → [21.4.7] 3,137.4

시장 여건, 금융권 컨센서스를 감안하여,
증안펀드의 매입약정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조성된 자금은 출자기관에 배분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안펀드 자체는 계속 존속(~'23.4월)하면서
시장불안시 출자기관들과 즉각 매입약정기간을 재설정하고
지원을 재개할 것입니다.
즉, 유사시에 지체없이 투입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우량채 지원을 담당해 온 채안펀드는
1.4조원의 가용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당분간 현재의 지원여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현재까지 총 3조원 조성 → 1.6조원 지원, 1.4조원의 지원여력 보유

앞으로 회사채시장 안전판 역할은 비우량채 매입에 주력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채안펀드 여유자금(3조원중 1.4조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물론 회사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채안펀드도 즉시 추가 캐피탈콜을 재개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제도적 틀을 유지하여
금융시장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4. 시장 리스크 점검·대응 강화

균형 잡힌 금융대응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장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아케고스(Archegos) 펀드 사태는
금융시장이 표면적으로 안정(stable)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 아래에 여러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취약한(fragile)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금리상승 우려 등
시장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물론,

그 동안의 금융완화 기조와 과잉 유동성 상황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 마무리 말씀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금융안정’은
일견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위기의 온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두가지 모두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유동성과 잠재위험요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코로나19 위기를 “확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키워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 드리는 “진단-대응 정책체계”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시장과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